

테마별 뽑기기

2022개정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공통 교육과정은 일반 초·중등학교 공통 교육과정에 의함. 다만, 특수학교에서는 시각·청각·체육·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초·중), 농인의 생활과 문화(초·중), 첨자(초·중·고), 수어(초·중·고)를 활용할 수 있음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설계의 개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은 시각장애 학생이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시각장애로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시각장애 학생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자기 관리 역량, 협력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의 학양을 강조하고 있다. 시각장애 학생은 자주적인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하기 어려우므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에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 생활 전반에서 겪는 다양한 장벽과 어려움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기술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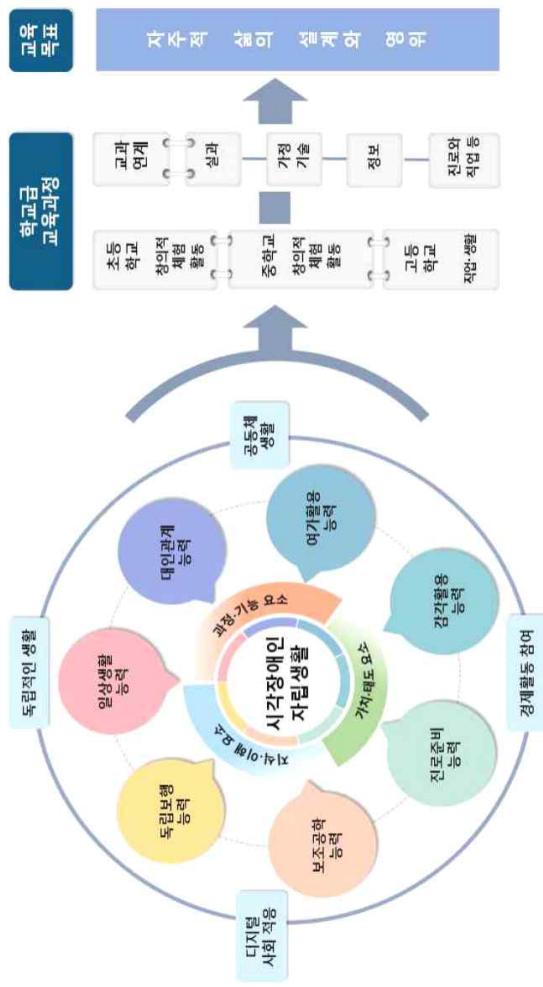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립생활 역량은 출론에서 제시한 학년역량을 시각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자립생활은 생활하는 공간을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혼자서 일상 활동을 해 나가는 **독립적인 생활 역량**,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어려움에 대처할 때 즐기는 **공동체 생활 역량**,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 적응 역량** 그리고 자신의 진로 목표에 따라 진로를 준비하여 직업생활에 참여하는 **경제 활동 참여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시각장애 학생은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으로 자주적인 생활 안으로 성장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게하고 영위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하고 있다. 성격에는 시각장애 학생이 현재와 미래에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교육 활동의 필요성을 세시하였고 목표에는 시각장애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준비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측면에서 자립생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세부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는 시각장애 특성과 교육에 관한 이론, 학교 현장의 교육 요구와 변화, 외국의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 구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생활 장면에 필요한 자립생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7개 내용 영역으로 체계화하였다. 또한 학교급별에 따라 필요한 자립생활 지식, 기술, 태도를 단계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교수·학습 및 평가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에 제시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등학교의 특수교육 전문 교과로 편성·운영하는 것에 더하여 학교의 교육 여건에 따라 실과, 가정·기술, 사회, 도덕, 정보, 전로와 직업, 보건 등 초·중등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디지털 사회에 사용되는 각종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교육에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은 시각장애 학생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자립생활 역량을 기르도록 7개 내용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015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에서는 5개 내용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나, 2022 개정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에서는 여가 생활을 즐기고 직업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가 활용과 전로 준비 영역**을 추가하여 7개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7개 내용 영역은 생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보행·영역', 일상의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상생활 영역',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대인 관계 영역'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정보와 생활에 접근하는 능력을 기르는 '보조공학 영역', 시각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잔존 감각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감각 활용·영역', 비장애인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여가 활용·영역**, 자신의 적성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을 준비하는 능력을 기르는 '전로 준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은 시각장애 학생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인 삶을 설계하고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중심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개 내용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하고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핵심 아이디어'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핵심 아이디어는 앞서 밝힌 네 가지 자립생활 역량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자립생활 역량과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가지 범주로 구체화하였다. **'지식·이해' 내용 요소**는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시각장애로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선정하였다. **'과정·기능·내용의 내용 요소'**는 잔존 감각을 이용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전략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는 자립생활의 가치 인식, 자립생활의 바른 습관 형성,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 간에 조합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림 10]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 설계와 원리

공통

★ 초등 기출 ♡=초등 기출

19

농인의 생활과 문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농인의 생활과 문화'는 농학생들이 농인의 정체성을 탐색,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원만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이해·과정·기능을 습득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가치·태도를 갖추어 사회 구성원이자 농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성격'에는 교육과정 활용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을, '목표'에는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탈성할 수 있는 학습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핵심 역량은 삶의 주체로서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자립생활 역량으로 구성된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에 기반하여 '농인의 생활과 문화'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2015 개정 '농인의 생활과 문화'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역량, 자립생활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역량'을 확장한 것이다. '자기관리 역량'은 농인 생활의 특성, 농인의 역사, 농인의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주체로서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다. '자립생활 역량'은 농인 생활의 이해를, 자립생활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상대방과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인정하며,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심미적 감성 역량'은 농인의 예술적 분야에 기반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공동체 역량'은 농사회와 농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부심을 기진 농인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다양성 이해를 농인뿐 아니라 청인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삶을 영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농인의 생활과 문화'의 7가지 영역은 농인의 정체성 탐색을 기반으로 생활을 성장하고 개선하게 하며, 나아가 농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립생활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은 긍정적 대인 관계 형성과 미래 설계를 바탕으로 삶의 주체로서 자립하여 더 나은 삶을 향유하게 하며, '공동체 역량은 다양성을 이해해 사회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내용 체계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핵심역량을 토대로 설정한 7가지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와 함께 '지식·이해·과정·기능'·'가치·태도'의 3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 '내용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및 평가'는 전반적 교수·학습 및 평가·시 필요한 내용을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과 방법으로 나누어 각각 제시하였다. '농인의 생활과 문화'의 7가지 영역은 농인의 생활과 탐색·이해·적용하여 성공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립생활·영역', 공동체와 농사회를 탐색하고 농인의 독창적 삶을 탐구하는 '역사·영역', 농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뿐 아니라 청인의 문화를 수용하는 이중문화 정체성을 지향하는 '정체성·영역',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상호 작용 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영역', 농인의 특성을 반영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영역', 잔존 청력 활용과 학습 및 사회 참여를 극대화해 줄 공학·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공학·영역', 청인 중심 사회에서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원들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복지·영역'으로 구성된다.

'농인의 생활과 문화'의 '핵심 아이디어'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삶과 문화를 탐색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확인하며, 의무를 실천하고 권리를 누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관련 아이디어를 '내용 요소'에 반영하였다. 특히, 청인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상호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또한 내용 체계가 학교급에 따라 확대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인의 생활과 문화'는 농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이해'를 학교급의 각 단계에 따라 습득하고, 이해한 지식에 기반하여 수행과 경험을 강조하는 '과정·기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가치·태도'가 확립되도록 37가지 범주를 통해 7가지 영역별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범주들은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성취기준을 적용하였고 '성취기준'을 부기적으로 설명하였고 '성취기준'을 제시한 활동이 성취기준에 적용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그림 11] 2022 개정 '농인의 생활과 문화' 교육과정 개요

점자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점자 교육과정은 시각장애 학생의 문자 학습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 특수 교육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학습자를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 보처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등의 허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핵심 아이디어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핵심 아이디어**는 앞서 밝힌 네 가지 점자 사용 역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점자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점자 사용 역량과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가지 범주로 구체화하였다.

기대하는 내용을 핵심 아이디어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핵심 아이디어**는 앞서 밝힌 네 가지 점자 사용 역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점자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점자 사용 역량과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가지 범주로 구체화하였다. '지식·이해의 내용 요소'는 '한국 점자 규정'과 점자 학습이 필요한 초·중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음악, 일본어, 영어, 일본어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교과 활동에 필요한 점자 기호와 규정을 단계적으로 이해나가도록 하였다. **과정·기능의 내용 요소**는 점자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고 쓰기 위한 효과적인 점자 학습 전략과 방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는 점자 학습에 대한 흥미, 자기주도적 점자 학습관 형성, 점자 사용의 자신감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 간에 조합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제시하였다.

점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점자 사용 역량은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점자 사용 역량은 점자로 읽고 쓰는 **문자·언어 사용 역량**, 점자로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의사소통 역량**, 점자로 국어, 수학, 과학, 음악, 일본어 등의 교과 지식을 학습하는 **교과 수행 역량**, 디지털 사회에 다양한 정보와 매체를 사용하는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은 점자를 사용하여 등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점자 교육과정은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하고 있다. '성격'에는 시각장애 학생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점자 학습과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어과를 보완하는 문자 언어 교육과정임을 제시하였다. '목표'에는 점자를 체계적으로 익혀 학습과 생활 전반에서 점자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네 가지 점자 사용 역량에 도달할 수 있는 세부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는 한국 점자 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현장의 점자 교육 요구와 변화 등을 분석하고, 점자 사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가지 범주의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학교급별에 따라 필요한 점자 기호와 규정을 단계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교수·학습 및 평가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초·중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지도하는 것에 더하여 학교의 교육 여건에 따라 국어, 수학, 과학, 음악, 일본어 등의 초·중등학교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도하하며, 디지털 점자 매체 및 기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점자 교육과정의 영역은 시각장애 학생이 자주적인 학습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8개 점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 교육을 위해 국어 교육과정과 영어 교육과정 내에 '한글 점자와 영어 점자' 2개 점자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자 교육을 위해 점자 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8개 점자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8개 점자 영역은 점자 학습 준비를 위한 **점자의 기초**, 국어 생활과 국어 교과 학습을 위한 **한글 점자**, 초·중등학교의 교과 학습을 위한 **수학 점자**, **과학 점자**, **음악 점자**, **영어 점자**, **일본어 점자**,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이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낱말들을 점자로 익혀 사용하기 위한 **기능적 점자**로 이루어져 있다.

점자 교육과정은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시각장애 학생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자 생활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중심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8개 점자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하고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핵심 아이디어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핵심 아이디어**는 앞서 밝힌 네 가지 점자 사용 역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점자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점자 사용 역량과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가지 범주로 구체화하였다. '지식·이해의 내용 요소'는 '한국 점자 규정'과 점자 학습이 필요한 초·중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음악, 일본어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교과 활동에 필요한 점자 기호와 규정을 단계적으로 이해나가도록 하였다. **과정·기능의 내용 요소**는 점자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고 쓰기 위한 효과적인 점자 학습 전략과 방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는 점자 학습에 대한 흥미, 자기주도적 점자 학습관 형성, 점자 사용의 자신감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 간에 조합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2] 점자 교육과정 설계와 원리

2016년에 제정된 「한국 수어·언어법」에서는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며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농인과 한국 수어 사용자가 한국 수어 사용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한국 수어로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수어'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청각장애 교육 현장에 교육·가정에 시설된 교육·가정에 대응하는 교육·가정에 시설된 교육·가정이다.

'수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은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모두 네 가지 역량으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수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수어를 사용하여 교실 수업에서의 교과 학습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식정보보자리 역량, 수어의 중요성과 수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기 감성 역량이다. 이를 통해 '수어'는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농문화 협력적 소통 능력을 신장하며, 교과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과 정보보자리 능력을 키워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자기주도적 태도와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

이러한 과정에서 '수아의 고유 역량'을 규명하였고, 청각장애 학생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해야 하는지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쓰인 기준의 지식, 기능, 태도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단순한 지식 습들이 아닌, 학습자의 이해를 강조하고자 '과정·기능' 부분에 중 태도를 함께 선정하고 포함하여 내용을 두어 구성하였다. 또한 수아와 능문화에 대한 가치뿐 아니라 습득해야 할 내용을 더 잘 전달되도록 구성하였다.

‘수어’에는 ‘수어 이해·표현’, ‘교과 수어’, ‘수어 문법’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수어 이해·표현’ 영역은 언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 기술에 해당한다. ‘수어 이해’는 상대방이 표현한 수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원기와 듣기와 해석하는 영역이고, ‘수어 표현’은 상대방의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하여 설명·설득·설득·요구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기와 쓰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셋째, '수어 문법' 영역은 청각장애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얻어 한국 수어 문법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다양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영역이다.

특히 '수어'의 핵심 아이디어는 지식의 한 종류인 개념이 아니며, 청각장애 학생이 수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영역별·학년(교)별 내용 요소의 기저를 이루는 중심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수어'에 통합적으로 접근해 이해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내 다른 과학과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즉 **핵심 아이디어는 '수어'의 세 가지 영역의 학습을 청각장애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이며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수어'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3] 수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초등교사 / 초등특수교사 인터넷 강의 웹닷컴 (www.wesaem.com)

기본 일상생활 활동

교육과정 신설 배경 및 개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개인의 안녕과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발달의 각 영역에서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기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 실생활에서의 독립성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학생의 독립적인 삶에 기반이 되는 생활 적용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일상 생활 활동'을 신설하였다.

일상생활 활동은 실제성, 통합성, 지속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실제성**은 학생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생활 적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리이다. **통합성**은 생태학적 환경 속에서 필수적인 생활 기능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과, 더 나아가 실제 삶까지 확장되고 전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지속성**은 실생활 능력과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자기 관리, 지역사회 참여, 직업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생애 맞춤형 교육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일상생활 활동은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원리를 기반으로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의 우선순위, 학생의 생태학적 맥락을 중심으로 영역별 교육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

일상생활 활동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 요구 간의 차이로 인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생의 요구에 따른 생활 적용 능력을 진중적이고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활동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생활 기능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생활적응(시각증복, 청각증복, 지체증복)**으로 구성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일상생활 활동은 학생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에 필요한 생활 적용 능력을 향상하며,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활동은 '학생 맞춤형', '기능적 활동 중심', '모듈형'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일상생활 활동의 운영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활동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은 인간의 다양성과 생태학적 맥락에서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생에게 적합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하지만 7촌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생활 적용 능력을 향상하고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일상생활 활동은 학생의 교육적 필요, 학교(급) 실정, 지역 사회 여건 등을 반영하여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생활연령,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년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림 13] 일상생활 활동 교육과정의 개요

둘째, 일상생활 활동은 '기능적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다. 학생이 살아가는 생태학적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기꾸고 지역사회와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고 기능적인 지식, 기능, 태도 학양을 목적으로 일상생활 활동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별 내용 요소는 학생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일상생활 활동은 '모듈형' 교육과정이다. 즉,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과 내용 요소는 학습 단위이자 교육과정의 한 구성 요소로서 분절성, 독립성, 상호 관련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교육적 순서를 위하여 없으며, 제시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영역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일상생활 활동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에게 필요한 기능적 영역과 내용 요소를 맞춤형 교육과정에 담아 모듈형으로 설계하고 편성·운영하여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생활 적용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기능적 활동 중심 교육과정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 모듈형 교육과정



기본

★=초등 기출 ♥=초등 기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생활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학년군을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영역별 활동 내용을 개선하였다. 또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공지능 코딩 교육과 2015년 UN이 발표한 기후·생태계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성격 및 목표', '영역 및 활동', '설계 및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성격 및 목표'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과 참여를 독려하여 급변하는 신산업사회에 대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涵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학교 적응 및 자아 성장과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키우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 중심 활동에서부터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공동체적 가치 함양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학교급별 목표로 초등학교에서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발견하도록 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 능력을涵양하며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역 및 활동' 구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4개 영역(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3개의 영역(자율, 동아리, 진로)으로 재구조화하였고 특히, 2015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서 영역 수준의 봉사 활동이 2022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서는 활동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셋째, '설계 및 운영'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주체가 학교임을 강조하였으며 국가와 시·도 교육청은 '지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도록 제시하였다. 학교급별 편성·운영 중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기술하였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 중심 교육, 현장 운영에 적합한 활동,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영역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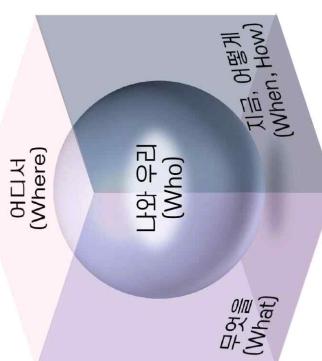
| 영역 | 활동 | 주요 내용 |
|-------|--|---|
| 자율·자치 | 자율 활동 자치·적응 활동 | 자신의 의견과 권리 표현하고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실천할 수 있는 내용 |
| 동아리 | 예술·문화·스포츠 활동 생활실습 활동 단체·봉사 활동 정보통신기술 활동 |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신장하고, 여가 활용과 디지털 소양 능력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
| 진로 |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인식 및 탐색 활동 진로 체험 및 체계 활동 |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여 자신의 진로를 지속해서 탐색·개발할 수 있는 내용 |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기본 교육과정 통학교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삶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생태학적 환경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요소를 선정조작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바른 생활, 생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 전반에 걸쳐 안전 교육의 요소를 반영하고,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신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입학 초기 적용 활동을 강화하고, 범교과 학습과의 관련성을 높였다.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텔학문적 주제 중심의 교과'로 성격을 규정하고, 통학교과 치원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의 계획과 방법을 구안한 다음, 바른 생활, 즐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2022 개정 초등학교 통학교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의 네 개 영역을 공유하면서 기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학생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어디서)과 시간적 공간(언제)에서 경험하는(어떻게) 다양한 삶의 주제(무엇)를 3차원적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통학교과의 3차원적 영역 구성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통학교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생태학적 환경에 근거한 장소와 시간, 방법으로 구성된 3차원적 삶의 공간을 바탕으로 학생의 삶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식과 기능적 요소를 '지식·이해 및 과정·기능'의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여기서 지향해야 할 '가치·태도'의 요소를 범주화하였다. 이를 위해 통학교과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살아가는 생태학적 환경의 다양한 요구를 교과의 근거로 설정하고 생태학적 환경에서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내용 요소로 구성하였다. 학생은 3차원적 영역 구성을 바탕을 둔 생활 주제를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삶의 주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교사는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를 전제로 각 교과의 내용 요소를 자유롭게 통합하여 학생의 생태학적 환경에 적합한 텔학문적 주제 중심 통합단원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통학교과 교육과정은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주어진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하고 예전과 학생 요구 및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설계하였다. 교사는 통학교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 체계에서 제시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요소를 조합하여 새로운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수업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이해'의 요소를 선정한 다음, 학생의 수행 방식에 관한 과정기능의 요소를 선택하고, 성취기준을 통해 학생이 갖추어야 할 '가치·태도'의 요소를 조합하여 성취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치·태도' 요소를 명사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생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태도를 보다 척박하게 드러내고 학생의 행위가 나타내는 양상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형의 '과정기능' 요소를 안내하는 부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이는 학생이 삶에서 갖추어야 할 '가치·태도'의 기능을 '지식·이해' 및 '과정·기능' 요소와 별개로 간주하지 않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이를 수행하는 태도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총체적 양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통학교과의 지향점을 바탕을 둔다. 학생은 지식과 기능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태도를 따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태학적 맥락에서 중요한 삶의 양식을 총체적이고 통합된 행위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반복하여 경험할 필요가 있다.

<표 1> '가치·태도'의 요소를 명사형에서 부사형으로 표현한 예

| 비른 생활 | 슬기로운 생활 | 즐기운 생활 |
|--|--|---|
| 바른 태도와 방식 능동적 자세 존중 협동 변함없는 노력 일관된 태도 | 관심 있는 태도 자유로운 방식 다양한 방식 적극적 자세 적극적으로 쓰임새에 맞게 설명할 안전한 태도와 방식 | 자유로움 다양한 방식 창의성 적극적 자세 제미 건강함 안전하게 운영할 |
| 구체화 규범을 형상 실천한다. = 규칙과 규범+실천하기+변함없는 노력 | 생활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 생활 도구+사용하기+다양한 방식 | 신체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한다. = 신체활동+참여하기+안전한 태도와 방식 |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디지털·미디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현유 역량, 자기 성찰·개발 역량’**을 국어과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 자가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을 국어과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중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현유 역량, 자기 성찰·개발 역량’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역량을 유지한 것이고, ‘디지털·미디어 역량’은 디지털·다매체 시대로 변화한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자료·정보 활용 역량’을 수정한 것이다. 국어과의 여섯 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이해와 표현, 협력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학, 언어생활에 대한 성찰과 개선, 문화·현유 등의 강조점을 중심으로 국어·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반영하였다.

국어과 공동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학습·평가’로 구성하였다. ‘성격’에는 국어과 학습의 필요성, ‘목표’에는 핵심 역량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국어과 학습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에는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를 밝히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범주와 그에 따른 학년별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습자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일부 성취기준에는 ‘성취기준 해설’을 제시하였고,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지도할 때 유익한 사항을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설명하였다.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는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시 강조할 사항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국어과 공동 교육과정의 영역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듣기·말하기는 음성 언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읽기·쓰기는 문자 언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문법’은 언어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중심으로 ‘문학’은 문학에 대한 이해와 수용·창작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해 온 전통적 영역이다. ‘매체’는 신설한 영역으로, 기존 영역에 부분적으로 번역해 온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수정·보완하되,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 요소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다. 국어과 여성 영역은 언어 사용의 실제성과 학습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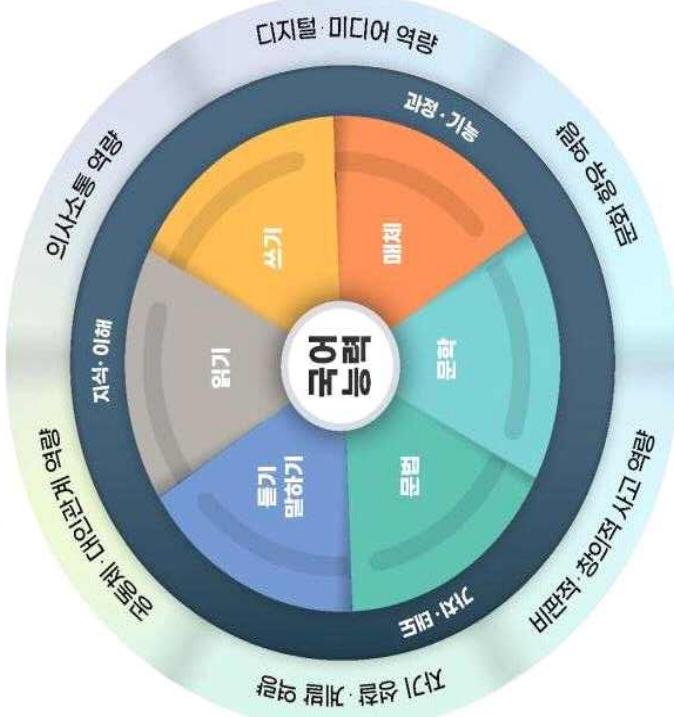
국어과 공동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는 국어과 영역을 이어면서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관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술한 것으로, 내용 체계의 설계를 위한 핵심 조직자이다. ‘핵심 아이디어’는 국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결과이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하여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향에 따라 학습자를 언어 주체로 보고 국어 활동을 수행하는 언어 주체의 역할에 주목하여 핵심 아이디어를 양자별로 3~4개의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국어과 공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매체 영역의 경우, ‘지식·이해’는 의사소통의 백과과 유형, ‘과정·기능’은 의사소통의 과정과 전략, ‘가치·태도’는 흥미, 효능감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구성하였다. 문법 영역의 경우, ‘지식·이해’는 언어의 본질, 백락, 규범 등, ‘과정·기능’은 국어의 분석, 활용, 성찰, 비판 등 탐구 활동 관련 요소, ‘가치·태도’는 국어에 대한 호기심, 민감성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구성하였다. 문학 영역의 경우, ‘지식·이해’는 문학의 갈래와 백락, ‘과정·기능’은 문학 작품의 이해, 해석, 감상, 비평 등 문학 관련 요소, ‘가치·태도’는 문학에 대한 흥미와 타자 이해, 가치 내면화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국어과 공동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어과 목표

•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
•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 자신의 언어를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 문화를 향유하고 청소하는 사람



국어(청각장애) 교육과정의 개요

국어(청각장애) 교육과정에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디지털·미디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한글·한유·역량, 자기 성찰·체벌 역량’을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과(청각장애)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 자가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국어(청각장애)과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중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한글·한유 역량, 자기 성찰·체벌 역량’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역량을 유지한 것이고, ‘디지털·미디어 역량’은 디지털 디매체 시대로 변화한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자료·정보 활용 역량을 수정한 것이다. 국어과의 여섯 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이해와 표현, 협력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언어 생활에 대한 성찰과 개선, 문화·한유 등의 강조점을 중심으로 국어 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반영하였다.

국어과(청각장애) 공통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의 구성 체계를 근간으로 하며, 청각장애 학생이 교육과정 안에서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성격’에는 국어과 학습의 필요성을, ‘목표’에는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국어과 학습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내용(군)별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은 청각장애 학생의 역량 힘양을 위하여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일부 성취기준에는 성취기준 해설을 제시하였고,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를 밝히고 ‘자식·이해·기능·기능·기능·기능’으로 세 범주와 그에 따른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은 청각장애 학생의 역량 힘양을 위하여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일부 성취기준에는 성취기준 해설을 제시하였고,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지도할 때 유의할 사항을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설명하였다.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는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시 강조할 사항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국어과(청각장애) 공통 교육과정의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쓰기·문법·문학·매체의 여섯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듣기·말하기’는 음성 언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읽기·쓰기’는 문자 언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문법’은 언어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중심으로, ‘문학’은 문학에 대한 이해와 수용·창작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해 온 전통적 영역이다. ‘매체’는 신설한 영역으로, 청각장애 학생의 수용을 비롯하여 기존 영역에 부분적으로 반영해 온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수정·보완하여,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 요소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다. 국어과 여섯 영역은 언어 사용의 실제 성과 학습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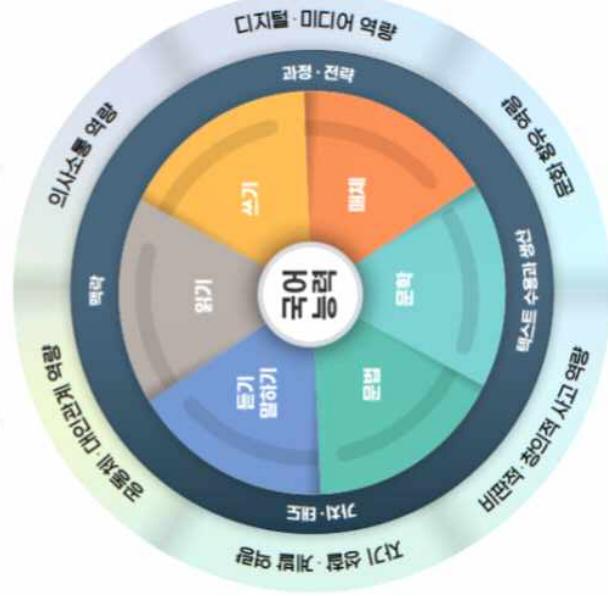
국어과(청각장애) 공통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는 국어과 영역을 아우르면서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술한 것으로, 내용 체계의 설계를 위한 핵심 조작지이다. ‘핵심 아이디어는 국어 학습을 통해 청각장애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결과이면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향에 따라 국어 활동을 수행하는 언어 주체의 역할에 주목하여 영역 간 연계성이 확보되었다.

국어과(청각장애) 공통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자식·이해·기능·기능·기능·기능’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듣기·말하기, 읽기·쓰기·매체 영역의 경우, ‘자식·이해’는 수어·자문자 등을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맥락과 유형, ‘기능·기능’은 의사소통의 과정과 전략, ‘기능·기능’은 흡미, 효능감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구성하였다.

문법 영역의 경우, ‘자식·이해’는 언어의 본질, 맥락, 규범 등, ‘과정·기능’은 국어 및 수어의 분석, 활용, 성찰, 비판 등 탐구 활동 관련 요소, ‘가치·태도’는 국어 및 수어에 대한 호기심, 민감성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구성하였다. 문학 영역의 경우, ‘자식·이해’는 문학의 갈래와 맥락, ‘과정·기능’은 문학 작품의 이해, 해석, 감상, 비평 등 문학 활동 관련 요소, ‘가치·태도’는 농인 문화의 존중과 문학에 대한 흥미와 타자 이해, 가치 내면화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국어과(청각장애) 공통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어과(청각장애) 목표

-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
- 공동체 구성원과 민주시민으로서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 자신의 언어를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사람
-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인하고 가치 있는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



[그림 1] 국어과(청각장애) 공통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는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디지털·미디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문화형유 역량'을 국어과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국어과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중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은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의 역량을 유지한 것이고, '디지털·미디어 역량'은 디지털 대체 시대로 변화한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역량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대인 관계 역량'은 '문화형유 역량'으로 '문화형유 역량'으로 이 률을 바꾸어 설정하였다. 국어과의 여섯 역량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국어 사용, 대인 관계와 언어 공동체 의식, 창의적 사고와 표현, 국어문화 청유 등의 강조점을 중심으로 국어과의 '성격과 목표'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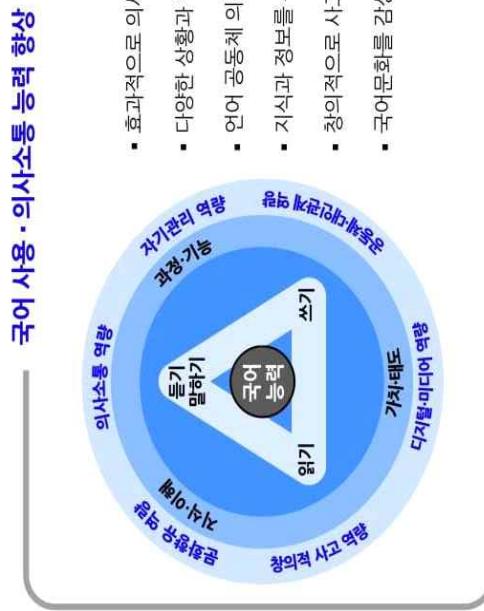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는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하였다. '성격'에는 국어과 학습의 필요성을, 목표에는 국어과 역량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국어과 학습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에는 목표와 역량의 연계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언어 발달 및 언어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를 밝히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기자·태도'의 세 범주와 그에 따른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돋고자 '성취기준 해설'을 제시하였고,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지도할 때 유의할 사항과 중도중복장지 등 내용과 방법을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설명하였다. 교수·학습 및 평가에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활동의 실제를 반영하고, 국어과 영역 간 학습 내용의 연계와 응용을 활성화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시 '읽기', '쓰기' 영역에 포함하여 실제적인 맥락 내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는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듣기·말하기'는 **음성 언어 의사소통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읽기·쓰기는 **문자 언어,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정과 기기, 매체와 매체 자료 등 다양한 방식과 유형의 언어 이해와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공동 교육과정 국어과의 '문법', '문학', '매체' 영역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 포함하여 실제적인 맥락 내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 '내용 체계'의 '핵심 아이디어'는 국어과 각 영역을 이루면서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술한 것으로, 내용 체계의 설계를 위한 핵심 조작자이다. 핵심 아이디어에는 언어 주체의 역할에 주목하여 학생이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속하여 주목하여야 할 내용을 전술하였다.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 내용 체계는 국어과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과 국어 사용 능력을 고려하여 '지식·이해', '과정·기능', '기자·태도'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지식·이해' 범주에서는 국어 과 학습을 통해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요소, 개념, 원리를 전술하였고, '과정·기능' 범주에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태 활용되는 사고 및 탐구 과정, 교과 과목의 철자적 지식과 교과 학습 후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수행 기능과 능력을 중심으로 전술하였다. '기자·태도' 범주에서는 국어과 학습 과정에서 길러야 할 고유한 가치와 태도를 전술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의 구성 원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기 주도적인 국어 생활



[그림 2]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 구성 원리

[해설: 출처 - 2022개정 기본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 의사소통 역량(서로 소통하기):** 학생이 자신의 언어 능력과 표현 방식에 따라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자신의 의사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다.
- 자기관리 역량(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기):** 일상생활,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어 다양한 상황과 언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사이좋게 지내기):** 의사소통 참여자를 존중하는 마음과 언어 예절을 억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언어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이다.
- 디지털 미디어 역량(디지털 정보 활용하기):** 매체와 매체 자료,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다.
- 창의적 사고 역량(새롭게 표현하기):**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 밖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기 생각과 의견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 문화형유 역량(건강하며 누리기):** 담화와 글, 디지털 텍스트를 감상하고 창작하면서 국어문화를 형유하는 능력이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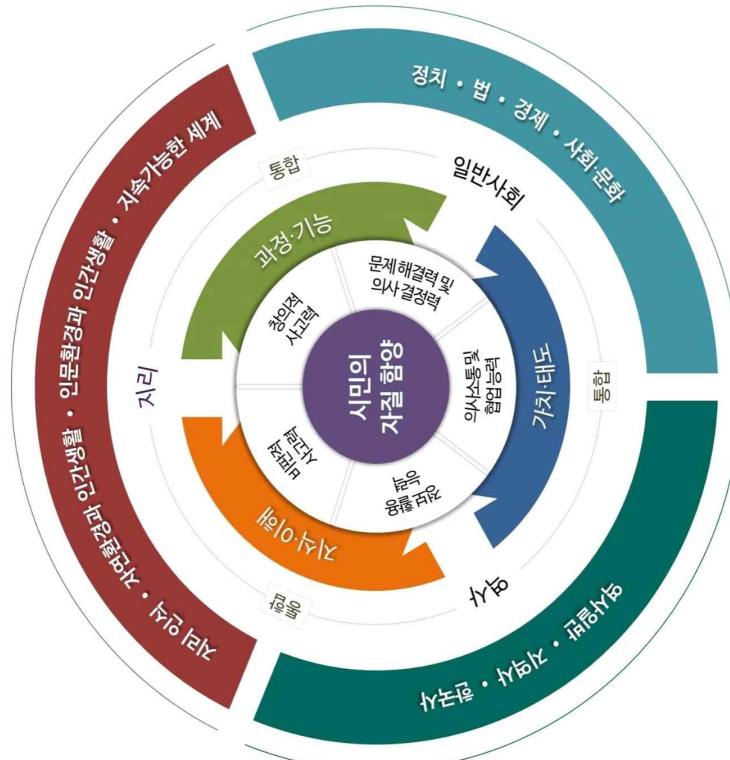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성격 및 정체성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사회과는 출론에서 비전으로 제시한 '포용·성과·성의 철학 갖춘 주도적인 사람'과 연계하여 사회과 역할을 청의식 고령,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으로 설정하였다.

사회과의 교육과정 체계는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의 교육목적과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격은 주로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시민성과 내용 구성의 중점 등을 다루고 있으나, 이는 사회과의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사회과의 내용 체계는 영역별로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학습 내용을 도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를 허나군별 및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이 내용 체계는 성취기준의 근간이 되고, 성취기준은 대체로 지식·이해, 고정·기능, 가치·태도 중 두 가지 이상의 내용 요소를 정합하는 방식으로 전술되어 있다. 교수·학습 및 평가는 사회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교과 수준의 교수·학습 및 평가 중점 사항에 초점을 두고 진술되어 있다.

사회과는 **‘자리 인식’,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 가능한 세계’,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일반’, ‘지역사’, ‘한국사’**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영역은 시·공간 속의 인간과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문제나 정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 **지구촌이나와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와 책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역사** 관련 영역은 다양한 정소와 공간의 특성, 인간과 환경 간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기여한다. **사회** 관련 영역은 청자, 법,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대처 안목을 키우며, 다양한 시각에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해석하고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에 대해 청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지리·관련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지리·현상을 인식하고, 자연현경과 인문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작용을 파악하며 지속 가능한 새세계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었다. **일반사회 관계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치·법·경제·사회·문화 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민주적 가치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었다. **역사·관련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역사의 의미를 알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사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회과의 **자식·이해**에는 학생이 시민의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인간과 공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시간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과정·기능**은 시·공간 속의 인간과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정점을 분석하며, 다른 사람 및 집단과 소통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해석·활용·창조, 권리·역사·사회과학 탐구,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의사소통 및 참여 등**이 제시되었다. **기치·태도**는 민주적 가치 및 지구적 가치와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로 구성되었다.



[그림] 사회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사회과는 학생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게 하는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학생은 자기 삶의 맥락에서 실존하는 주체이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책의 있는 시민으로서 관계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이다. 이에 따라 사회과 교과 역량을 **‘자율생활 역량, 대안관계 역량, 사회참여 역량’**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종로의 인간상과 연계된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나의 삶’** 영역과 **‘자율생활 역량’**과 연계된다. 청의적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람은 **‘관계의 삶’** 영역과 **‘대안관계 역량’**, **‘시민의 삶’** 영역과 **‘사회참여 역량’**과 연계된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지닌 교양 있는 사람은 **‘시민의 삶’** 영역에서 역사·문화소양을 지닌 **‘사회참여 역량’**으로 표현된다.

사회과 교육과정은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 성격에는 사회과의 기본적 정의와 주구하는 시민성, 사회과 필요성, 교과 목표와 연계한 교과 역량, 내용 선정 및 구성 원리, 교수학습과 평가 기본 방향 등 사회과의 전반적 특징이 서술되었다.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시민성은 교과 목표로 구체화하여 내용 영역 하위범주에 따라 학년군 전체를 총괄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탄력적 환경 확대법과 나선형 순환 구조’**라는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 원리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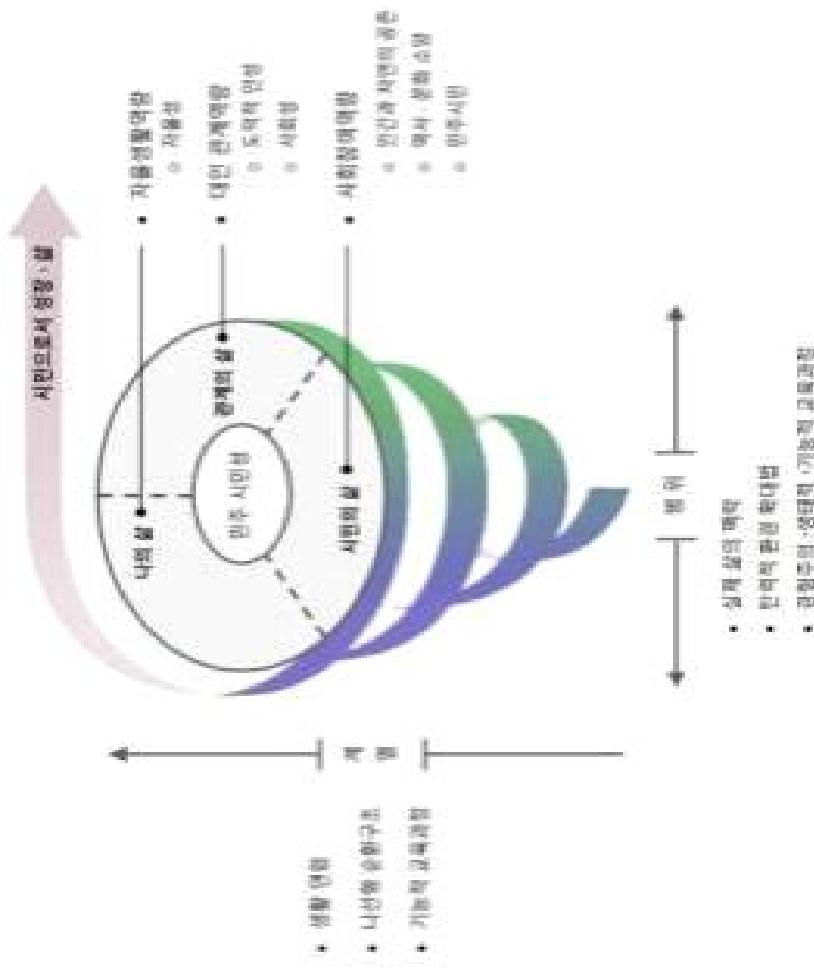
사회과 내용 영역은 ‘나의 삶’, ‘관계의 삶’, ‘시민의 삶’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교육이라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점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사회과 내용 영역을 지리, 역사,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누는 분과적 구성 방식 대신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통합한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영역의 틀을 유지한 것이다.

개체 발생적 고유성에 바탕을 둔 **‘나의 삶’** 영역은 도덕과의 자율생활 관련 주제들과 함께 장애인 권리협약 및 관련법에서 강조하는 자기 결정 및 자기 응호 등의 개념들이 자율성을 하위범주로 하여 반영되었다. **‘관계의 삶’** 영역은 삶의 시·공간적 환경에서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도덕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내용으로 도덕적 인성과 사회성을 하위범주로 둔다. 계통 발생적 보편성에 바탕을 둔 **‘시민의 삶’** 영역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역사·문화소양, 민주시민을 하위범주로 둔다. 하위범주별로 전통적인 사회과 영역들에 **‘침정권을 포함한 민주시민 교육, 생태전환 및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을 포함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지리와 경제를 융합하였고, **‘역사·문화 소양’**은 역사와 문화를 그리고 정치와 법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을 구성하였다.

사회과 내용 요소는 학생이 현재 및 미래 사회 환경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사회생활이다. 생활연령에 바탕을 둔 다양한 사회생활 경험은 사회 참여 활동으로서 학습 목표이자 내용이 되어 교육과정의 범위를 이룬다. 학년(군)별로 설정된 사회적 맥락의 범위는 **‘탄력적 환경 확대법’**을 적용하여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게 해석된다. 생활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생활 경험은 확장과 반복을 연속하며 나선형 순환구조를 갖는 교육과정 계열이 된다. **‘나선형 순환구조’**는 지식·이해·수준을 심화하지 않고 사회과 학습 경험을 통해 ‘과정기능과 가치·태도’ 형성 기회를 넓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과 학습 내용은 학생 자신의 생활 맥락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되어 학생의 성장을 돋운다. 사회과에서 학생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학습 경험의 수평적 조직은 **‘생태학적 접근과 아동 중심의 경험주의적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하고, 생활연령의 변화에 기초한 나선형 순환의 계열화는 가능한 교육과정 원리’**에 기초한다. 기능적 교육과정 원리는 내용 범위와 계열화 모두에 적용되어 생활연령에 따른 실재적 사회과 조치 선형 순환을 거듭하면서 시민으로 성장하며 삶을 영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성취기준은 ‘과정기능’과 ‘가치·태도’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사회적 경험에 기초하여 ‘자식·아이는 활동 자체 및 활동 수행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교수학습’은 학생이 경험하는 실생활 정역이 곧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자 학습 과제라는 관점으로 한다. 교과 고유의 교수학습 모형과 기법을 학생에게 맞춤화하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활용을 강조하였다. ‘평가’는 사회과를 통해 생활연령에 따른 다양한 사회생활 경험 여부를 기본 방향으로 **‘사회적 탄력도와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사회과 구조 개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상인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가치와 도덕의 차원에서 품종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포용성과 주도성**은 도덕과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도덕적인 인간'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도덕성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또한 창의성에는 도덕적 상상력의 힘양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은 창의성이 수반될 수 있는 고립성과 배타성 등의 어두운 측면을 완화시키는 도덕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덕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힘양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과는 **비판적이면서도 배려적인 사고력과 도덕 판단 능력**,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도덕공동체 의식, 생태계 위기에 공감하는 도덕적 상상력, 새로운 정보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등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목표로 하는 시민역량과 생태전환 역량, 디지털 역량의 힘양에 기여하는 교과로서 역할을 헤벌 수 있다. 동시에 도덕과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냄으로써,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설정 기준은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관계의 확장에 주목하는 가치관계 확장법이다.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과의 핵심 질문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관계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가치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는 네 영역으로 설정되고, 가치관계의 확장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다시 자신과의 관계로 순환하는 과정(過程)으로 이루어진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자연·초월과의 관계·영력을 자연과의 관계로 바꾸고 초월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요소를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 포함시킨 점이다**. 궁극적으로 조율 문제도 주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실존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역 설정의 변경을 통해 가치관계의 영역이 한층 명료해지고, 도덕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Q1 | 수업 중 질문: 가치관계 확장법은 무슨 뜻인가요?

기자관계 확장법은 도덕적 주체가 성찰 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자관 계란 도덕적 주체와 사고 대상(객체) 간 관계를 의미하며, 도덕적 주체와 사고 대상 간의 관계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이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은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현상에 관한 탐구와 내면의 도덕성을 지향하는 **성찰**, 일상의 **실천**이라는 세 요소가 순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차면하는 도덕 현상은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닌 탐구의 대상으로 다가와 있고, 그 현상에 관한 탐구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성에 관한 성찰을 동시에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학장되거나 다시 번성적 성찰의 대상이 되는 되먹임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 과정은 도덕 수업을 중심축으로 학교와 가정, 사회로 확장되고 순환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도덕과는 그 과정의 구현을 학교 수준에서 책임지는 교과로서의 책무를 지닌다.

이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각 영역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출제되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정의, 자연과의 관계에서 책임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초·중등 학교에서 도덕 수업을 받은 사람이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는 품성과 역량을 문장형으로 기술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핵심 아이디어는 내용 체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 범주의 내용요소와 성취기준을 통합하는 역할과 함께, 도덕 수업의 지향점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는 기능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내용 체계는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체계의 세 범주, 즉 **지식·이해·과정·기능·가치·태도**의 범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덕적 지식이 지니는 실천적 특성을 반영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여 도덕과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지식·이해 범주는 학생의 도덕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도덕 수업의 과정은 정해진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삶을 향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질문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진술 방식의 선택은 이미 우리 전통 속에서 '회화(話頭)'라는 개념으로 정착하여 일상화된 방식이기도 하고, 도덕과가 포함하고 있는 철학교육과 메티지 차원의 종교교육을 포용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과정·기능 범주에서는 도덕 수업이 단순한 도덕적 또는 윤리학적 지식의 전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탐구와 성찰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가치·태도 범주 또한 일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도덕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 속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태도와, 그 실천 자체를 수연 상황 속 탐구와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가치탐구와 수양(修養)의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덕과는 학교라는 중심축을 토대로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역동성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총론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며 '자기 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르고,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언어 소양의 기초 소양 함양도 강조하였다. 이에 수학과 교육과정은 충론의 핵심 역할과 연계하여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리·보완' 역량을 수학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고,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범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여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용 체계를 도모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 주도성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학과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로 구성하였다. 성격에는 수학과의 고유한 특성과 수학 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표는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성하였는데, 총괄 목표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통합적으로 학습하여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세부 목표는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처리 역량을 각각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내용 체계는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구성하였다. 성취기준에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도달점으로 구체적인 성취 내용을 제시하였고,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는 성취기준의 취지, 범위 등 수학과 성취기준의 고유한 측면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교수·학습과 평가에는 수학 교과 역량 및 총론의 개정 중점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학과의 영역은 초·중학교에서 다루는 수학적 대상과 기본적인 개념을 드러내는 '수학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으로 구성하였다. 초·중학교의 영역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내용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초·중학교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대상과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초·중학교의 4개 영역은 고등학교의 수학 과목이나 선택 과목을 학습하는 데 초기가 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내용 체계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관통하는 수학 내용의 본질 또는 가치를 보여주며, 학생들이 핵심 아이디어를 향한 길이 있는 학습을 추구하게 하였다. 수학과의 핵심 아이디어는 주요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확장되며 그 결과로 어떤 일반성과 추상성을 획득하는지,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어떻게 상호 관련되는지, 어떤 탐구 과정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지 등을 업족하여 제시한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는 수학 과정에서 전이가기 높은 내용을 담은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는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구성하였다.

지식·이해 범주는 수학의 핵심적인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학년(군)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초·중학교의 지식·이해 범주는 학년(군)에 따라 위계성을 가지며, 영역 간에도 위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과정·기능 범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학습할 때 5가지 교과 역량이 발현되는 사고 과정이나 기능을 보여주도록 구성하였다. 가치·태도 범주는 수학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이 갖게 되는 태도와 실천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는 성취기준 개발의 근거가 된다.

수학 수업을 계획할 때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먼저 내용 체계의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 영역 전체를 아우르거나 관통하는 관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확인하여 중점을 두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한다. 이어서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교수·학습 및 평가'를 확인하여 세부적인 수업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한다. 수업 계획이 성취기준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성취기준을 아우르거나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지 점검하여 보완한다.

수학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충분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험양하여 표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양어 수리·디자털 기초소양을 갖추어 학교 교육 및 평생 학습에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에 기본 교육과정 수학과에서는 충분의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문제 해결 역량, 주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연결 역량, 정보처리 역량**을 수학 교과의 역량으로 설정하고, 수학과 역량의 함양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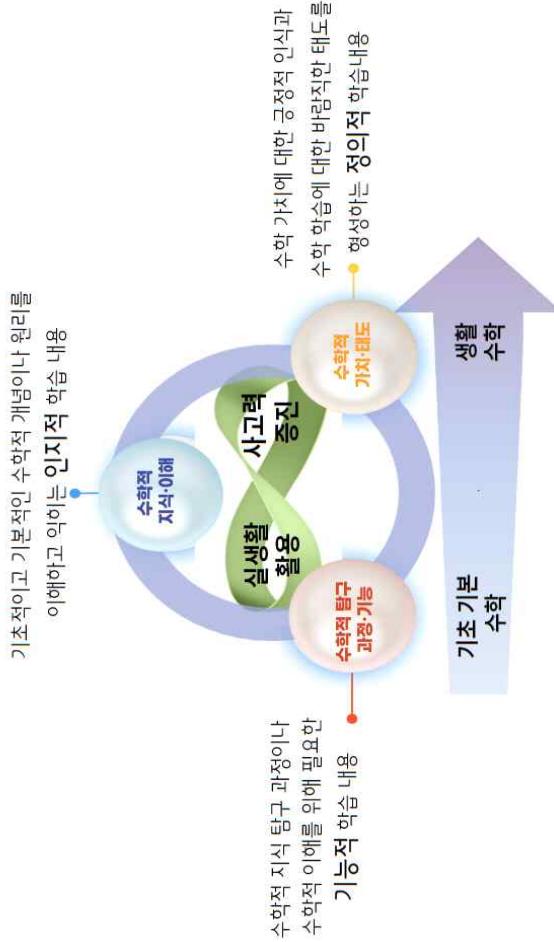
기본 교육과정 수학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며, 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하였다. '성격 및 목표'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 교육과정 수학과의 특성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의 5개 영역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성취기준' 해설과 적용 시 고려 사항을 기술하였다.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는 어떻게 교수·학습 활동이나 평가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기본 교육과정 수학과의 설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수학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수학을 배운다는 것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수학을 이끄는 것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추상적인 수학을 다듬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사고력의 증진을 의미한다. 즉 수학 자체의 성격에 실용성과 추상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은 실용적인 수학을 학습하면서 실생활 적응 능력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수학을 구체적 조작 활동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검증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더욱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러한 수학 학습의 의미 형성 과정에서 학생이 익혀야 하는 수학 학습의 내용은 **수학적 지식·이해·수학적 탐**하는 것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추상적인 수학을 다듬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사고력의 증진을 의미한다. 즉 수학 자체의 성격에 실용성과 추상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은 실용적인 수학을 학습하면서 실생활 적응 능력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수학을 구체적 조작 활동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검증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더욱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구 **'과정·기능'**, **'수학적 가치·태도'**로 구성된다. 수학적 가치·태도는 인류가 만들어낸 수학이라는 학문 내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익히는 인지적인 범주를 말한다. 수학적 탐구·'과정·기능'은 수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나 수학적 이해를 위해 동반되어야 하는 수학적 기능을 경험하고 익히는 기능적인 범주를 말한다. 수학적 '가치·태도'는 수학적 '지식·이해'의 학습과 수학적 '과정·기능'의 습득과 더불어 수학 학습을 통해 형성해야 하는 수학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학 학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의 정의적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익히는 인지적 학습 내용



[그림 4] 2022 개정 기본 교육과정 수학과 설계의 개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과학과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시민으로서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총체적인 능력인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등과 같은 범교과적이고 일반적인 총론의 역량과 연계하여 **과학적 탐구와 문제해결 능력,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 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과학과 교육과정은 생태 소양, 민주 시민의식, 디지털 소양을 갖추고,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영역을 창출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영역은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법칙을, 물질 영역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 및 화학적 변화를, 생명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 현상의 원리를, **지구와 우주 영역은 자연 현상의 변화와 지구시스템의 주요 원리를 다룬다.**

과학과 사회 영역은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과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을 반영한 **추가한 영역**으로, 과학의 일반적 성격 및 사회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과학과 학습 아이디어는 과학 영역별로 주요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등 과학의 영역별로 주요 과학 개념과 원리의 일상생활 적용과 통합·융합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과학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종합하여 학습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학습 아이디어는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전술한 것으로, 과학과 관통개념을 공유하면서 과목별로 유기성과 연속성을 지닌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된다.' '성격 및 목표'에서 각 과목의 고유한 특성과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는 과목의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별 주요 내용, 요소 및 학생이 교과 학습을 통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과학과 성취기준은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통해 '영역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차원을 상호보완적으로 함양함으로써 영역별 학습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과학과 지식·이해는 과학과 영역별로 학생이 알고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과학과 과정·기능은 학생들이 과학 학습을 통해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는 과학과 탐구 기능과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과 협업**을 근간으로 영역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과학과 가치·태도는 **과학 가치**(과학의 심미적 가치, 감수성 등), **과학 태도**(과학 청의성, 유용성, 윤리성, 개방성 등), **창의와 실천**(과학문화 향유, 안전·지속 가능 사회에 기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지식·이해뿐만 아니라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이 행위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 함양을 위해 교수·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 그리고 교수·학습과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평가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기본 과학 교육과정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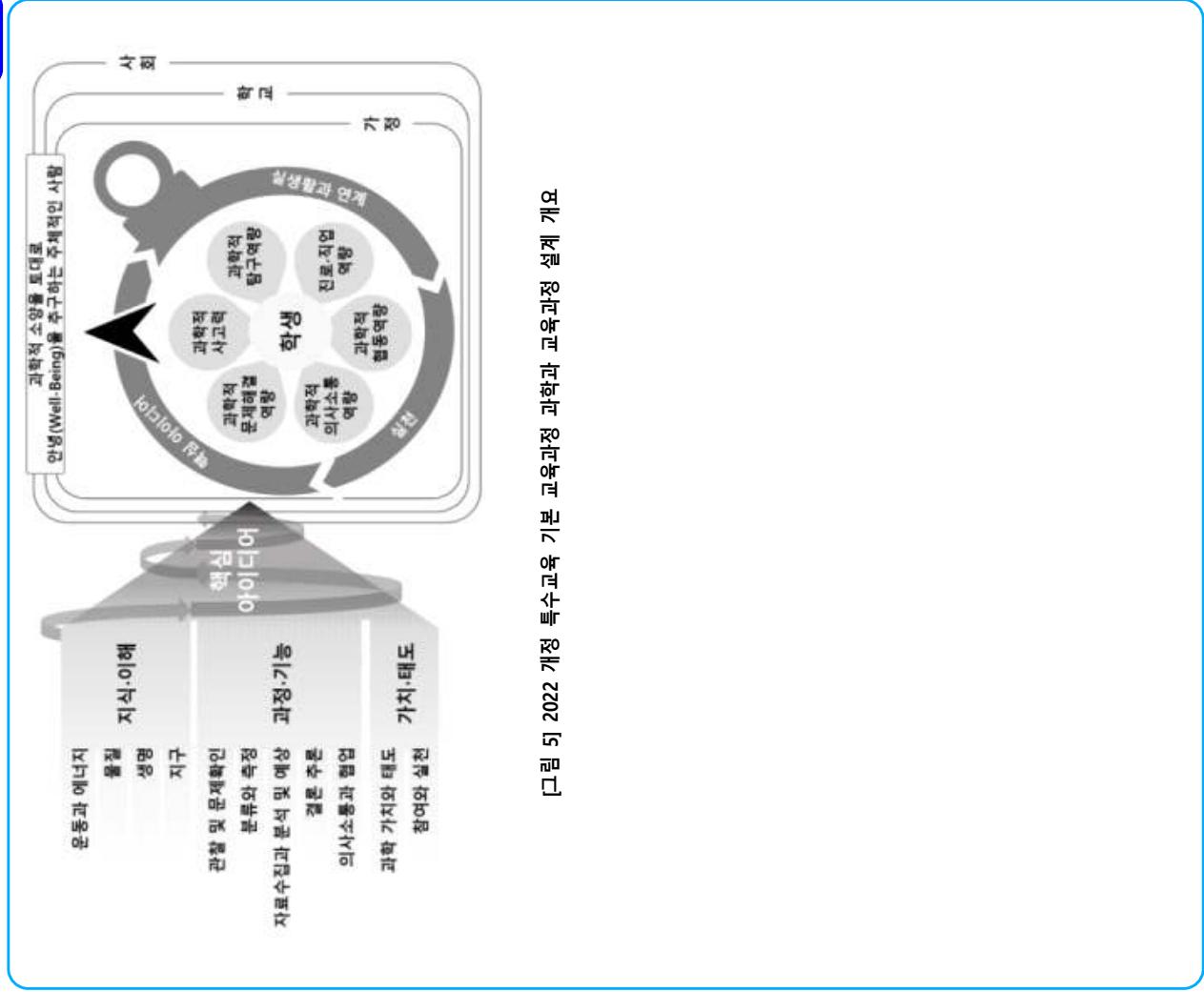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과학과는 공동 교육과정 과학과의 교과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공동 교육과정 과학과의 보편성을 주구하면서 학생의 장애에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가정, 학교, 사회 등 실생활과 연계되는 생활 및 기능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과학과는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에서는 과학과 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을 설명하고, 목표와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에서는 영역별 학습 아이디어와 함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대한 학년군별 내용 요구를 제시하였고, 성취기준과 성취기준과 성취기준은 학년군에 따라 구분하고 영역별·범주별 성취기준 해설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에서는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방향과 함께 학생의 장애 특성에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방향과 함께 학생의 장애 특성과 고려한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교수·학습 방법은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평가'는 '평가 방향'과 '평가 방법'으로 제시하여 평가 방향에서는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보편적 학습설계**, 원격수업 상황에서의 평가 방향을 제시하였고 평가 방향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과학과의 영역은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이다. 이 영역은 공동 교육과정 과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다. 2015 개정 기본 교육과정 과학과의 영역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는 '운동과 에너지'로 변경하였고, '우리 몸과 동물과·식물'이 '생명'으로 통합되었으며, **지구와 우주는 지구**로 변경하여 영역의 수가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핵심 아이디어는 기본 교육과정 과학과 영역 내 내용 요소를 포괄하는 일반화된 개념이나 원리로서 지식·이해 범주의 세부 범주별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결합하여 기술하였다. **지식·이해**는 영역별로 세부 범주를 두고, 각 세분화한 범주에 따라 학년군별 계속성 및 위계성을 고려하여 내용 요소를 배치하였다. **과정·기능** 범주는 텁구 능력을 토대로 과학적 실천을 반영하여 관찰 및 문제 확인, 분류와 측정, 자료 수집과 분석 및 예상, 결론 추론, 의사소통과 협업으로 도출하였고, 각 영역의 특성, 내용 요소 등을 반영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치·태도**는 과학 가치와 태도, 참여와 실천의 요소를 균간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따라 연속성과 위계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기본 교육과정 과학과는 불행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할 민주시민으로서 **과학적 소양**을 토대로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주체적인 사람'을 육성하고자 한다. 기본 교육과정 과학과는 교과 내용(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이 융합된 학습 아이디어를 습득하여 학생이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역량**, **과학적 문제 해결 역량**, **과학적 의사소통 역량**, **과학적 협동 역량**, **진로·직업 역량**, **친환경** 학교, 사회에서 적면하는 과학과 관련된 문제를 학습 아이디어, 실생활과 연계, 실천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며 안녕을 추구하는 주체자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림 5]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 설계 개요